

	인도 (뉴 델 리) 사 무 소 해외동향보고서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하 승 창 소 장
		일 시	2025.01.

CEPA Insight

- 1조 넘는 투자금 몰린 인도, '펀더멘털이 관건'
- 주춤한 전기차...! 14억 인도' 새 돌파구 될까

■ 1조 넘는 투자금 몰린 인도, '펀더멘털이 관건'

- 글로벌 생산기지 부각에 인도 증시 관심도 상승, 작년 국내 인도 주식형 펀드에 1조 넘게 유입
 - 지난해 국내 인도 주식형 펀드에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이 몰린 가운데 인도 증시가 계속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림. 최근 달러 강세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제한되며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인도 경제 성장세에 매력도가 재차 부각 될 것이란 전망.
 -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국내 인도 주식형 펀드 37개 설정액은 1조 994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생산기지로 인도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투자금도 대거 몰림. 지난 한 해 인도의 대표지수인 센섹스 지수는 8.17% 올랐고, 니프티 50지수는 8.80% 상승. 인도 증시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면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도 다양해짐. 당초 니프티50 지수를 정배수 또는 레버리지로 추종하는 상품만 상장돼 있던 시장에는 지난해 인도 대표그룹인 타타그룹 계열사에 투자하는 상품부터 인도의 대표 소비재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까지 테마형 ETF 4종이 추가로 상장. 아울러 삼성자산운용은 인도 중소형 주에 투자하는 'KODEX 인도Nifty미드캡100' 상장도 앞두고 있음.
 - 다만 인도 증시는 지난해 9월 고점을 찍고 최근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 국내 인도 펀드의 평균 수익률을 보면 1년 기준 25.18%지만, 최근 3개월 기준 -0.39%를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전환. 이는 인도 증시가 단기간 빠르게 상승하며 가격 부담에 대한 우려가 누적된 한편 강달러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힘.
 - 그럼 에도 인도 증시에 대한 로컬 투자자들의 꾸준한 투자 유입이 뒷받침되고 있고 경제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대외 리스크가 완화되면 인도 증시의 매력이 재차 부각 될 것이란 전망.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 증시 소액 투자자의 자금 유입은 이미 11월 말 기준 1조 5,400억 루피로 2021년 최대 기록(1조 4,200억 루피)를 넘어섰음. 김근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인도 펀더멘털은 제조업과 민간소비가 회복 조짐을 나타내면서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대외 리스크가 완화돼 신흥국에 유리한 여건이 마련된다면 펀더멘털의 개선이 확인되고 있는 인도 증시의 상대적 매력도가 높을 것”이라고 밝힘.

(출처: 이데일리 2025. 1. 2.)

■ 주춤한 전기차.. '14억 인도' 새 돌파구 될까

● 인도 정부는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

- 인도 델리에서 블루 스마트는 택시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선점에도 나서고 있음. 이들이 전기차 사업에 과감히 뛰어드는 건 인도의 전기차 확대 정책과 무관하지 않음.
- 모디 인도 총리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움. 이로 인해 인도 전기차 시장은 2032년까지 연평균 20%가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전 세계적으로 침체된 전기차 업계가 인도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
- 인도 델리의 경우 매년 겨울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고통받고 있음. 이로 인해 내연기관보다는 전기를 빨리 전환시켜 인도가 자동차의 주력국가로 우뚝 서고자 하는 욕망이 있음.
- 인도 정부는 전기차 확대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복잡한 교통 환경과 인프라 부족은 전기차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현재 전국에 1만 5천 개에 불과한 전기차 충전기도 2030년까지 132만 개가 추가로 필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소를 찾기가 쉽지 않아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 최소 **5억 달러** 이상을 인도 생산시설에 투자한 업체에게 최고 100%에 달하는 전기차 관세를 **15%까지** 낮춰주기로 했으며 테슬라도 인도에 공장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현대차는 지난해 인도 증시 상장 이후 이달 들어서 인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첫 전기차 모델을 선보임. 14억 명이 넘는 막대한 내수시장을 가진 인도는 지난해 중국과 미국에 이어 차량 판매량 세계 3위를 기록. (출처: MBC /2025. 1. 13.)

■ 2025년 예산안, 구(Old)세제 폐지 검토, 신(New)세제 확대 가능성

● 2025년 신 세제체계를 통해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 경감효과로 인한 소비 확대 가능성

- 인도 재무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기존 세금 체계를 폐지하고 신규 세금체계(New Tax Regime)로 완전히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신 세제는 공제 혜택을 간소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구조로 설계되어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됨. 전문가들은 신 세제 도입이 중산층과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그러나 구 세제를 폐지할 경우, 일부 납세자들은 기존의 세액 공제 혜택을 잃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됨. 정부는 예산안 발표 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도기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

(출처: MSN News, "Budget 2025: Will the Finance Minister Scrap the Old Tax Regime?" 2024. 12. 27.)